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재정패널 출산이력 부가조사 소개

■ 재정패널DB사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조사(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6차년도에 실시된 출산이력 부가조사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본조사 데이터와의 병합을 통해 산출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출산이력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자 주>

들어가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조사(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에서 추출된 5,634가구로, 이 가구들을 원표본(패널)으로 삼아 매년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설문하는 내용은 가구 단위로 응답되는 내용과 가구의 구성원인 가구원이 응답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가 응답하도록 하며, 가구의 일반 현황, 소비지출, 복지 수혜 및 가계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과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패널조사는 종단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 문항은 매년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다. 다만, 제도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나 특정한(또는 한시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신규 문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규로 추가하는 문항 중 계속 조사하지 않고 특정한 시점에만 한시적으로 조사하는 문항이 있다. 이런 문항은 매년 조사되는 본조사 문항과 동일하게 자료로 제공하지만, 한번만 조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분을 위해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는 부가조사 자료라고 칭한다.

부가조사 자료는 1~2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기도 하며, 관련 문항을 모아 하나의 파트로 구성되기도 한다. 4차년도에 조사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과 6차년도에 조사된 '이력' 부가조사가 파트로 구성된 부가조사 자료의 예다. 특히 이력 부가조사는 하나의 파트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력 부가조사 안에서도 출산이력과 직업이력으로 내용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만큼 조사의 내용이 상세하고, 활용 가능성이 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6차년도에 실시된 출산이력 부가조사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본조사 데이터와의 병합을 통해 산출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출산이력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이력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출산이력 부가조사를 포함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재정패널 홈페이지(panel.kipf.re.kr) 회원가입을 통해 데이터 및 설문지, 코드북, 사용자 안내서, 그 외 기타 관련 보고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1. 출산이력 부가조사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조사 내용

6차년도에 실시한 출산이력 부가조사는 가구원의 출산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이다. 출산이력 부가조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구 내 가구원의 출산 정보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출산한 가구

원과 출생한 자녀가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 다만,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출산 정보는 조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출산 관련 정보는 조사되지 않는 것이다. 출산이력 부가조사는 가구원의 출산 유무를 조사하고, 출산 현황, 출산 전·후의 취업상태, 자녀 돌봄 상태,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 출산이력 부가조사의 자세한 조사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2008~2011년 출산이력 부가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출산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시기 - 출산 가구원 자녀 정보 - 분만형태 - 산후조리원 및 산후 도우미 이용 유무 - (산후조리원 이용 응답자) 산후조리 비용, 기간 - 수유방법 및 기간 - (모유수유 경험 응답자) 모유수유기간
출산 전 취업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 취업 유무 - (출산 전 취업상태 응답자) 출산을 위한 휴직제도 이용 유무 - (출산 전 휴직제도 이용 응답자) 유급휴직 이용기간 및 월평균 급여 - (출산 전 휴직제도 이용 응답자) 무급휴직 이용기간
출산 후 취업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취업 유무 및 취업상태 - (출산 후 동일 및 비동일 취업 응답자) 일자리 근무 형태 - (출산 후 비동일 취업 응답자) 출산 이후 이직 또는 취직까지 소요 기간 - (출산 후 비취업 응답자) 출산 이후 취업하지 않은 사유
자녀 돌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가구원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 유무 - (자녀 보육시설 이용경험자) 보육시설 최초 이용 당시 자녀 연령 - (자녀 보육시설 이용경험자) 현재 보육시설 이용 유무 - (자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 보육시설 형태 및 비용, 이용시간 - (자녀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 낮 시간 동안 주된 돌봄자 및 비용 지출 유무
출산 자녀의 양육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 지급 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양육 간 선택 영향 정도 (2) 추가 자녀 출산의 영향 정도 (3) 출산 가구원의 취업 활동 영향 정도 - 출산 자녀 양육 시 어려움

나. 조사 특성별 유의사항

1) 회상조사

출산이력 부가조사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응답은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화되는데, 이전 차수의 종단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 중 이력 부가조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문항이 있다면, 교차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출산이력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가구원의 출생년도나 성별 등이다. 이런 정보들은 응답자의 단순 착각 또는 입력의 실수 등에 의해 오류(불일치)가 발생하며, 변동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오류들은 최대한 점검하되, 참값을 확인할 수 없는 불일치 오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수정한다면 종단 조사 데이터와 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다른 의미로 자료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유의하여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조사대상 기간

출산이력 부가조사는 조사대상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 생애에 걸친 정보를 조사한다면 방대한 자료를 보유할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일에 대해 정확히 응답받을 가능성이 적었다. 반면 너무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종단자료로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내·외부 연구진과의 논의 및 자문 끝에 출산이력 부가조사의 경우 2차년도 조사대상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 조사대상년도(2011년)까지(과거 5년)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출산이력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을 과거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재정패널조사 이전의 자료는 가구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과 1차년도의 경우(2007년) 회상이 어렵고, 정확한 비용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내·외부 연구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6차년도의 경우 출산 관련 지출 항목이 본조사 항목으로 추가되었기에 2012년(6차년도 조사시점)은 출산이력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3) 조사지침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지침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자료를 분석할 때에도 조사의 지침을 정확히 이해한 뒤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출산이력 부가조사는 6차년도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자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출산한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지침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가구원이었던 사람 또는 출생한 자녀만 가구원인 경우 등은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응답받는 순서는 출산한 시기에 따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쌍둥이인 경우 자녀 모두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모유수유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로 한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1년 이상 모유수유를 하였더라도 최대 응답값은 12개월로 나타나도록 지침을 설정하였다.

2. 출산이력 부가조사 기초 분석

출산이력 부가조사 자료는 횡단 분석과 종단 분석이 모두 가능한 데이터로서, 본조사 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분석도 가능하다. 본절에서는 출산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의 구조와 병합 방법을 설명하고, 2~5차년도 본조사 데이터와 연계하여 산출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 데이터 구조 및 병합 방법

출산이력 부가조사의 데이터는 'NaSTaB_BIRTH'라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로 존재한다. 데이터는 가구를 기준으로 'wide'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 출산이력 부가조사 데이터 구조

변수명	HID	HS06A28	HS06A29	H06MA001	H06MA002~034	H06MA101~127	H06MA201~224	H06MA300~303
설명	가구ID	조사차수	2008~2011년 출산 가구원수	출산가구원 유무	기초정보 01~03	출산가구원 경제활동상태 01~03	출생자녀 돌봄상태 01~03	정책만족도
값		'6차년도'	'1~3명'					

HID는 출산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의 key 변수로 중복값이 없는 가구고유번호이다. HS06A28은 재정패널팀에서 생성하여 제공하는 변수로, 해당 가구가 출산이력 부가조사에 참여한 차수를 나타낸다. 이 변수와 함께 H06MA001을 통해서도 출산한 가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459가구의 출산이력 분석이 가능하다. HS06A29 변수 역시 생성변수로, 해당 가구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가구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다. H06MA002~303 변수는 출산이력 부가조사 문항에 해당하며, 기초정보와 출산한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출생한 자녀의 돌봄 상태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만약 출산한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 출산 시기의 오름차순으로 응답하였는데, 한 가구에서 최대 3명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

본조사 자료와 연계한 분석을 하려면 key 변수를 활용해야 한다. 가구 데이터와 병합하기 위해서는 HID 변수를, 가구원 데이터와 병합하기 위해서 출산 가구원 번호01~03(H06MA002, H06MA013, H06MA027)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HID 변수는 가구데이터에서 'HID__(HID+조사차수 두자리)'로 표시되어 있으며, 가구원 번호 변수는 가구원 데이터에서 'PID__(PID+조사차수 두자리)'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병합시에는 동일한 변수명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출산이력 부가조사 데이터는 가구를 기준으로 'wide' 타입이므로 출산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long' 타입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단, 구조를 변경할 경우 key 변수에 중복이 발생한다. 본조사 데이터와 연계 가능한 데이터명과 key 변수명은 <표 3>과 같다.

〈표 3〉 출산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와 본조사 가구 데이터 연계

데이터명	key 변수	출산시점	조사차수	데이터명	key 변수
NaStAb_BIRTH	HID, H06MA002, H06MA013, H06MA027	2008년 ↔	2차년도	NaStAb02H	HID02
				NaStAb02P	PID02
		2009년 ↔	3차년도	NaStAb03H	HID03
				NaStAb03P	PID03
		2010년 ↔	4차년도	NaStAb04H	HID04
				NaStAb04P	PID04
		2011년 ↔	5차년도	NaStAb05H	HID05
				NaStAb05P	PID05

나. 기초 분석 결과

2008~2011년 동안 출산을 경험한 가구원과 출산아의 수를 살펴보았다.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가구원 중 440명이 해당기간 동안 출산한 적이 있었고, 이는 6차년도 전체 가구원 수 대비 약 2.6%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출산아 수는 평균 1.2명으로 1명의 가구원이 최고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83%로 대부분이었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구원은 16.8%, 3명 이상을 출산한 가구원은 0.2%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출산아 수 산출시 쌍둥이는 2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4〉 출산 가구원 및 출산아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중
2008~2011년 출산한 가구원 수	440	2.6
평균 출산아 수	1.2명	
1명	365	83.0
2명	74	16.8
3명	1	0.2

주: 조사가구 내 가구원 중 2008~2011년 출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구원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1년간 출생률을 산출하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생률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재정패널 가구원 천명당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08년 10.7명, 2009년 10.4명, 2010년 8명, 2011년 9.9명으로 평균 약 9.8명을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조출생률은 2008년 9.4명, 2009년 9명, 2010년 9.4명, 2011년 9.4명으로 재정패널과 비교해 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재정패널조사의 출생률이 더 높았고, 2010년은 통계청의 출생률이 더 높은 반면, 2011년에는 거의 비슷

한 수준이나 재정패널조사의 출생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출생률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정패널조사 출생률	10.7	10.4	8.0	9.9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률	9.4	9.0	9.4	9.4

- 주: 1.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재정패널 출생률=(1년간 총 출생아 수/해당연도 조사 가구원 수)×1000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률=(1년간 총 출생아 수/해당연도의 연앙인구)×1000

〈표 6〉은 〈표 5〉의 연간 출생률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종단면 가중치는 모든 차수에서 응답한 가구에만 부여되는 가중치로, 출생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한 〈표 5〉의 출생률보다 연도별 출생률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11.1%, 2009년 9.3%, 2010년 6.7%, 2011년 7.2%로, 2010년까지는 매년 출생률이 크게 감소하다 2011년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조출생률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정패널조사 출생률	11.1	9.3	6.7	7.2

- 주: 1. 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재정패널 출생률=(1년간 총 출생아 수/해당연도 조사 가구원 수)×1000

다음으로 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출산가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8〉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출산한 가구원 연령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2008년 31.2세, 2009년 30.1세, 2010년 30.9세, 2011년 31.5세로, 평균 30.9세에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가구원의 교육수준은 연도별 특정한 변화추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대졸 이상인 경우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출산 가구원은 2.8%,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30.1% 대학교 졸업 이상은 67.1%였다.

출산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연간소득을 살펴보면, 평균 소득금액은 2008년 3,294만원, 2009년 3,629만원, 2010년 3,913만원, 2011년 4,181만원이었다. 소득분위별 출산 가구원 분포를 살펴보면, 3분위와 4분위에 속한 가구에서 출산한 가구원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1~2분위 가구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에서 출산한 가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1분위의 경우 2008년 5.4%, 2009년 6.9%, 2010년 10%, 2011년 6.7%로, 한해 평균 출산한 가구원 중 1분위에 속하는 경우는 평균 7.3%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

로 출산한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은 2008년 2,253만원, 2009년 2,675만원, 2010년 2,973만원, 2011년 2,465만원이었다.

〈표 7〉 출산 가구원 및 가구 특성

(단위: %, 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도별 출산 가구원 유무		1.1	1.0	0.8	1.0
출산한 가구원의 연령	평균 연령	31.2	30.1	30.9	31.5
	(중앙값)	31.0	30.0	31.0	32.0
	20대	28.4	48.8	29.2	29.2
	30대	69.9	49.6	68.6	67.3
	40대 이상	1.7	1.6	2.1	3.5
출산한 가구원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	2.1	2.2	2.8
	고졸	48.4	32.0	41.4	30.1
	대졸 이상	48.6	65.9	56.4	67.1
가구 소득	평균 소득금액	3,294.2	3,628.5	3,912.6	4,180.7
	(중앙값)	(2,900.0)	(3,036.0)	(3,558.0)	(3,953.0)
	1분위	5.4	6.9	10.0	6.7
	2분위	19.3	14.2	10.0	9.3
	3분위	32.3	36.5	33.3	28.7
	4분위	25.6	24.7	32.8	36.5
	5분위	17.5	17.7	13.8	18.8
가구 소비지출		2,253.4	2,675.1	2,972.8	2,464.6
(중앙값)		(2,058.4)	(2,173.6)	(2,438.0)	(23,38.0)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출산이력 부가조사에서는 출산한 가구원의 취업상태를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2008~2011년 출산 가구원의 출산 전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9.8%, 2009년 24.7%, 2010년 28.1%, 2011년 26.6%의 인원이 출산 전 취업 중인 상태였다. 반면 출산 후에는 전체 평균 취업자 비율이 약간 줄어든 24.4%로 나타났는데, 2010년과 2011년에는 출산 후 미취업인 경우가 각각 1.5%p,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출산 전·후 취업상태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출산전 취업상태	취업	19.8	24.7	28.1	26.6
	미취업	80.2	75.3	71.9	73.4
출산후 취업상태	취업	20.0	26.6	27.6	23.2
	미취업	80.0	73.4	72.4	76.8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출산 후 동일한 일자리에 복귀한 경우에는 ‘출산 후 동일 취업’으로, 출산 후 이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나 출산 전 미취업이었다가 취업한 경우에는 ‘출산 후 비동일 취업’으로, 미취업 상태인 경우 ‘출산 후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출산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출산 후 미취업인 가구원이 76.1%로 대다수이었으나, 취업을 하였다면 동일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4배가량 많았다. 출산 후 동일 취업한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만 31.5세로 비동일 취업 가구원(만 30세)과 출산 후 미취업 가구원(만 30.8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동일 취업자는 30대 비율이 76.1%로 높고, 20대는 22.8%로 낮았으며, 비동일 취업인 경우는 20대가 51.9%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출산 후 동일 취업한 가구원의 학력은 82.8%가 대졸 이상이었다. 반면, 비동일 취업이나 미취업 가구원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원의 비율이 각각 54.0%와 53.3%로 동일 취업 가구원의 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산 전 취업상태에 따라 출산 후 취업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산 전 취업자 중에서 동일한 일자리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77.0%이고, 이직하여 다른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는 7.0%, 미취업자는 15.9%였다. 즉, 출산 전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출산 후에도 동일한 일자리로 복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면 미취업 상태로 머무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출산 전 미취업이었던 경우에는 출산 후 취업하기보다는 계속 미취업으로 남아 있는 경우(95.7%)가 대부분이었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출산 후 취업한 가구원의 가구 소득 중에서도 동일 취업한 가구의 소득이 5,62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에 비동일 취업자 가구(3,391만원), 미취업자 가구(3,297만원)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출산 후 동일 취업한 가구원 가구의 경우 5분위의 비율이 45.0%로 가장 많았던 반면 1분위와 2분위의 분포는 5% 미만으로 적었고, 비동일 취업자 가구는 2분위와 3분위의 분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출산 후 미취업자 가구는 1분위의 분포가 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을 출산 후 취업 상태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자 중에서는 비동일 취업을 한 가구에서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소득과 비교하여 보면 약 92% 수준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집단은 동일 취업 가구원 가구로 약 2,900만원을 소비하는 데 사용하였고, 미취업자 가구는 2,448만원을 지출하였다. 소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동일취업자 가구와 미

취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차이는 소득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두 집단 간 소득의 차이는 1.7배 벌어졌으나, 소비지출의 차이는 1.2배 정도에 머물렀다.

〈표 9〉 가구원 특성에 따른 출산 후 취업상태

(단위: %)

		출산 후 취업		출산 후 미취업
		출산 후 동일 취업	비동일 취업	
전체		19.0	4.9	76.1
출산한 가구원의 연령	평균 연령	31.5세	30.0세	30.8세
	(중앙값)	(31.0세)	(29.0세)	(30.0세)
	20대	22.8	51.9	35.8
	30대	75.5	47.3	61.7
	40대 이상	1.8	0.8	2.5
출산한 가구원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0.8	3.8	2.9
	고졸	16.4	42.2	43.8
	대졸 이상	82.8	54.0	53.3
출산전 취업		77.0	7.0	15.9
출산전 미취업		-	4.3	95.7
가구 소득	평균 소득금액	5,624.7만원	3,391.1만원	3,296.7만원
	(중앙값)	(5,182.0만원)	(3,069.0만원)	(3,040.0만원)
	1분위	4.7	3.1	8.1
	2분위	0.6	22.4	15.9
	3분위	13.9	26.4	37.7
	4분위	35.8	39.3	27.2
	5분위	45.0	8.8	11.1
가구 소비지출		2,899.9만원	3,120.1만원	2,447.9만원
(중앙값)		(2,627.6만원)	(2,199.4만원)	(2,143.0만원)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표 10〉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2008~2011년 출산가구원 중 비동일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직 또는 취직까지 소요된 기간을 산출한 것이다. 분석 결과 평균 소요기간은 약 16.5개월(중앙값 12개월)이었다.

가구원의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20대가 10.8개월, 30대가 22.5개월, 40대 이상이 36개월로, 20대의 이직 및 취직까지 소요된 기간이 가장 짧은 편이고, 30대의 경우 20대보다 약 1년에 정도(11.7개월) 더 걸리며, 40대의 경우 평균 2년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가구원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중졸 이하의 경우 평균 12개월, 고졸의 경우 평균 17.8개월, 대졸의 경우 평균 15.8개월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가구원이 출산 후 직업을 구하는 데 시

〈표 10〉 출산가구원의 출산 후 이직 또는 취직까지 소요된 기간

(단위: 개월)

		이직 또는 취직까지 소요된 평균기간(중앙값)
전체		16.5 (12.0)
출산한 가구원의 연령	20대	10.8 (10.0)
	30대	22.5 (12.0)
	40대 이상	36.0 (36.0)
출산한 가구원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0 (12.0)
	고졸	17.8 (12.0)
	대졸 이상	15.8 (10.0)
출산 전 취업 상태	취업	15.5 (10.0)
	미취업	17.0 (12.0)

주: 1.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08~2011년 출산 후 취업 비동일 취업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출산 전 취업자가 15.5개월, 출산 전 미취업자가 17개월로 취업자가 좀 더 일자리를 빨리 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